

‘제56회 여수거북선축제’ 3년 만에 화려한 귀환...7월 개최

7월 29일~31일 3일간...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려

‘축제의 꽃’ 통제영길놀이·임진왜란 유적지 순례 등

여수시 대표축제인 여수거북선축제가 3년 만에 화려하게 귀환한다.

여수시와 (사)여수진남거북선축제보존회는 금년 ‘제56회 여수거북선축제’를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여수거북선축제는 매년 5월초에 개최됐으나, 지난 2년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최되지 못했다.

시는 3년 만에 개최를 앞둔 만큼 축제의 꽃인 통제영길놀이를 비롯해 임진왜란 유적지 순례, 신호연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사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AR 가상현실 등은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병행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전라좌수영 수군 출정 기념일에 맞춰 진행되는 고유제 등 제례행사는 축제 일정과는 별

도로 5월 3일 종민사에서 진행된다.

이종섭 축제추진위원장은 “축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온라인 프로그램 등 변화된 환경에 발맞춰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3년 만에 개최되는 여수거북선축제가 코로나에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호국충절의 도시, 여수의 자긍심을 높이는 축제가 되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는 여수거북선 축제에 앞서 7월 22일부터 10일간 ‘2012여수 세계박람회 10주년 기념행사’도 펼쳐질 예정이다.

여수=오상호기자



‘보성세계차EXPO’ 4월 29일부터 3일간 개최

보성군은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2022. 제10회 보성세계차엑스포’를 ‘대한민국 녹차수도 보성, 세계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한국차문화공원과 관내 체원 다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3일간 개최한다.

이번 엑스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 농가를 위해 판매 위주의 실용적인 행사로 준비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K-Tea 홍보 행사 및 라이브커머스(보성농특산물 할인행사), 세계차품평대회, 온라인 수출상담회 등이다.

관람객을 위한 체험행사도 준비돼 있다. 차

밭에서 봄을 즐길 수 있는 차밭 힐링 버스킹, 시크릿 보성티가든 체험, 프롬나드 보성티 스탬프 릴리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K-Tea 홍보관, Tea 카페 보성찐 물들차, 시크릿 보성티가든 체험, 프롬나드 보성티로드 스탬프는 이번 엑스포를 통해 처음 선보인 신규 프로그램이다.

또한, 행사 장소 다원화를 위해 서울지역 유명 카페 등과 협업하여 엑스포 접근성을 높였으며, 가족단위 여행객을 겨냥해 체험행사를 강화했다.

기동취재본부

“우리 아이 함께 키워요” 고흥군, 아동보호 프로그램 운영

전문기관 연계 심리상담, 양육코칭, 동물교감활동, 정서적서비스 지원

고흥군은 학대피해(의심)아동과 가족의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아동보호 프로그램인 「우리 함께 키워요! 행복한 아이 프로젝트」를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학대 증가에 따른 예방적 차원의 아동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군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학대피해(의심)아동과 가족

을 대상으로 3개 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 양육코칭, 동물교감활동, 정서적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고흥군은 아동보호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 일환으로 현장 전문가 중심의 아동보호 및 퇴소조치 심의를 위한 사례결정위원회와 아동관련 업무 협의 및 정보공유 등을 위한 아

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또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고흥종합병원)을 지정하여 학대피해아동 신체·정신적 검사 및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민간 아동안전 지킴이 20명을 위촉했으며, 민간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광양시, 어린이 맞춤형 ‘재난안전 체험교육’

광양시가 지난 4월 14일~6월 8일 옥룡면에 위치한 민방위 실천훈련센터에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재난안전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재난안전 체험교육은 4개 분야로 ▲화재 발생 시 대처요령 및 소화기 사용법 등을 체험하는 ‘화재진압’ ▲지진 시물레이터를 이용해 단계별 진도를 느껴보고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배우는 ‘지진체험’ ▲마네킹을 활용해 올바른 심폐소생술 방법을 배우는 ‘응급처치’ ▲비상상황 발생 시 탈출방법을 체험해보는 ‘피난탈출’로 구성됐다.

첫 교육은 지난 14일 6~7세 어린이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앞으로 25회에 걸쳐 800여 명의 어린이에게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에 참여한 어린이집 담당 선생님은 “위험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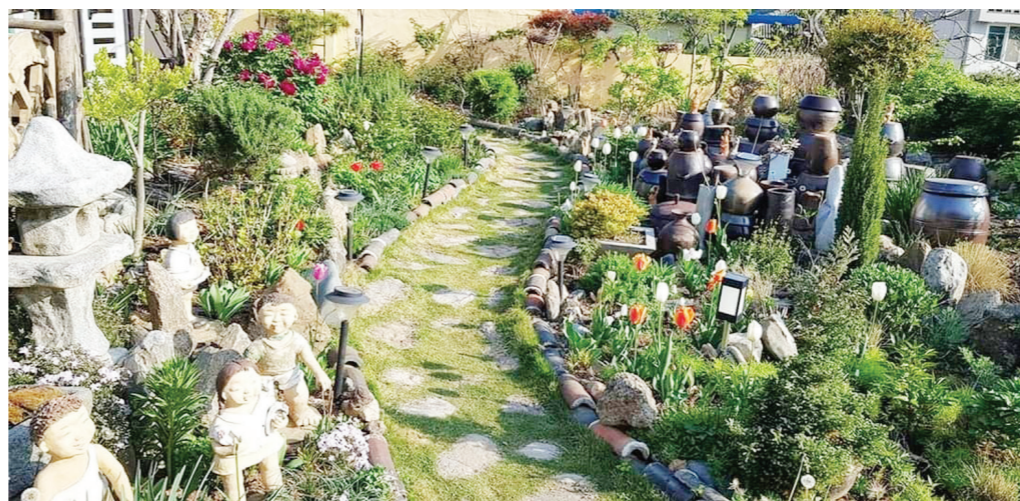
들이 배울 수 있었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좋았고, 추후 다시 운영된다면 또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병주 안전총괄과장은 “해당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직접 재난·사고 상황을 겪어봄으로써 안전한 생활습관 형성과 재난 대응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린이들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여러 분야의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심종섭기자

순천시, 귀향 은퇴자가 꿈꾸는 주택마당 정원조성 지원

마당이 있는 주택 2가구에 가구당 800만원 상당 지원...27일까지 모집



순천시가 귀향 은퇴자에게 전원생활의 꿈을 실현을 위해 정원을 꾸며주는 ‘순천드림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순천드림정원 조성사업은 지방 인구소멸 위

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사업으로, 은퇴자가 귀향·귀촌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 마당에 정원을 만들어 준다.

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2가구를 추진하고,

효과성 검토 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순천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은퇴 후 순천시 정착을 위해 최근 6개월 이내에 전입한 만 50세 이상 64세 이하의 순천시민으로, 단독주택 마당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참여 신청은 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 은퇴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27일까지 순천시 기획예산실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 및 면접심사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대상자와 정원코디, 지역 주민이 함께 정원을 조성하는데 가구당 800만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완성된 정원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개방되며, 도시 곳곳의 생활 속 정원으로도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데 일조하게 된다.

순천=김승호기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부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부지원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